

3.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

정 책 방 향

- ◇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건설
- ◇ 장기계획('03~'17)하에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『新지방화 시대』를 개척
 - ※ 1단계('03~'07) : 『新지방화시대』 기반 구축기
 - ※ 2단계('08~'12) : 『新지방화시대』 성과 확산기
 - ※ 3단계('13~'17) : 『新지방화시대』 정착기

-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『국가균형발전위원회』(4.9 발족)의 주무부처로서 지방의 자생력있는 발전기반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
 - 산자부내에 『국가균형발전추진단』을 설치·운영
 - 지방산업, 지방대학, 지역기반시설 등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관계부처의 관련사업을 종합 조정
- 생산, 기술, 기업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(RIS) 구축
 - 지역별 전략산업과 기술, 대학, SOC 등을 네트워킹하는 『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(5년 단위)』마련(산업집적활성화법 제3조)
 - 지자체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발전계획 수립

- 산업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『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』로 지정
 -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, 산업기반조성사업, 지방중소기업 육성관련기금 등을 우선 지원
-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의 총괄추진기구인 지역개발기구 (RDA) 설립
 - 지역개발기구를 통해서 예산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, 산·학·연·관, 지역언론,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

□ 지방대학을 지역특성화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

- 테크노파크(TP), 기술혁신센터(TIC) 등과 지방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기술혁신역량을 확충
 - 지방대학의 연구·교육 기능을 테크노파크의 시제품 생산, 상업생산, 기업지원 기능과 연계
- 지방대학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
 - 지방대학에 인력·장비·R&D 지원 확대
 - * ('02) : 853억원 → ('07) : 7,300억원
 - 지역산업의 연구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고,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, 홈닥터 형태의 『1사 1전담교수제』 실시
- 『국가인력지도』 작성, 『산업기술인력시스템』 구축을 통해 지역별·분야별로 중·장기 교육방향을 제시
 - 지역별로 특성화된 공학교육체계 확립

□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

- 지방정부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간 경쟁 원리에 따라 지원사업 심의·결정
 - 매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계획 수정 및 예산 차등화
- 중앙과 지자체간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상호책임을 공유하는 『지역발전협약제도(Plan contract)』를 내실화

□ 13개 시·도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확대 발전

- 금년중 대부분 완료되는 4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내년 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
 - 현행 「1 시도 1 산업」 원칙에서 탈피하여 전략산업을 추가
- 2002년부터 시작된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, 금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

□ 지방으로의 기업이전 촉진 등을 위한 성장인프라 확대

- 지방 이전·창업 기업에 「국가균형발전보조금」 지급 검토
 - * WTO체제하에서도 허용되어 EU·영국·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
- 지방소재기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지공급 확대
 - 산업단지를 전략산업별로 재편하여 산업집적화를 촉진
- 중소유통업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촉진하고 권역별 공동 집배송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물류의 효율화